

배달음식 시키고, 자유롭게 토론하고...“이젠 선거 즐겨야죠”

밤샘 개표 본 지역민...달라진 정치문화

“대선 개표 방송을 보려고 모였어요. 영업이 끝나 는 밤 11시 이후엔 집으로 돌아가 지켜보면서 메신 저로 소통해야죠.”

지난 9일 밤 10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이 일대 주점을 찾은 시민들의 시선은 온통 제20대 대선 개표방송에 집중돼 있었다.

주점에서 만난 A(6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방송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후 선·후배들과 만나 개 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5년 간 나라 살림 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날이니 만큼 모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개표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론을 벌였다.

A씨는 “두 후보(이재명·윤석열)가 초박빙인 만큼 주점이 문을 닫으면 집으로 돌아가 끝까지 결과 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역대 최소 격차로 당선자 가 나온 제20대 대선 결과를 지켜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역민들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지인 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영업제한 시간 이 후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새벽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새벽까지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야

주점서 영업제한시간까지 지켜봐 지지후보 달라도 다양한 의견 나눠 온라인 단체 대화방서도 열기 후끈 “동서 극명하게 갈리는 일 없기를”

식 배달주문이 잇따랐고 시민들은 오프라인 대신 SNS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선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선택한 후보의 당선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밤 늦도록 미래 대통령에 대한 바람과 기대 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선거를 즐기는 문화도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구 치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B(65·자영 업)씨는 지인 부부 두 쌍과 함께 만나 대선개표 방 송을 지켜봤다. B씨는 “너무 치열해 승부를 예측할 수 는 없지만 대통령을 결정하는 날이니 만큼 정치 성향을 떠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자영업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왔으 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 지지하는 후보는 달랐지만, 개표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각자의 의견 을 나눴다.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뜨거웠다.

시민들은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새벽시간까지 밤 잠을 설치면서 지인들과의 SNS 또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개표 상황을 캡처해서 올리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직장인 C씨는 “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기 전 까지,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다들 늦은 시간인데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는 “이렇게 박빙인 대선은 처음 본다”라며 “마지막까지 모르겠다”는 등의 의 견이 오갔고, 새벽 3시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 면서 새롭게 뽑힐 대통령에 대한 바람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에 대한 의견도 속속 울 려왔다.

한 누리꾼은 후보별 우세 지역을 지도에 색깔별로 나눠 표현한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다음 대선부턴 지도가 동서로 극명하게 빨강, 파랑으로 갈라지는 일 이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적어 올리기도 했다.

늦은 시각까지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 야식 주문도 잇따랐다.

광주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점 운영자는 “내일이 평일인데도 밤 10시부터 치킨 주문이 이어 지고 있다. 일요일과 비교해보더라도 평소보다 판 매량이 15%는 늘었다”면서 “식당들이 문을 닫으니



지난 9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찾은 시민들이 제20대 대선 개표 방송 을 지켜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집에서 개표방송을 보려는 주민들이 주문이 많은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선 후보자 벽보 철거 1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1동 사무소 직원들이 담벼락에 붙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바지사장 내세워 수의계약 따내 기대서 북구의원 벌금형 구형

검찰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구청 수의계약을 자신 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북구의원 기대서 의원에 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

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줄 것 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 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 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 게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 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와 자신과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 업을 따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 “동료였던 두 업체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구청 에 청탁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기 의원에 대한 선 고는 오는 24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심습지 가야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환경단체 “멸종위기야생생물 ‘가시연’ 등 서식...관리 나서야”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내 저수지이자 도심습 지인 ‘가야제’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 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 기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는 가야제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 하라”고 요구했다.

가야제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내 5만1724 ㎡ 규모의 저수지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 (수련과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가 시연은 국내에서 잎이 가장 큰 식물로, 잎이 너무 커서 좁은 습지에서 살 수 없고 씨앗이 발아하 는 데 여러 해가 걸려 번식이 더디며 깨끗한 물에만 서식한다. 지난 2017년에는 5억원을 들여 가시 연 서식처 복원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시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조속하게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야제를 비롯, 산정지구 내 습지 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산정지구에 있는 도심습지는 수남제와 가야 제, 산정제 등으로, 수남제와 산정제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으로 보전(保全)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게 환경단체측 설명이다.

수남제에는 맹꽂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 급), 가야제와 산정제에는 가시연(멸종위기 야 생생물 Ⅱ급)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 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 는 지질이 특이해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나 생태계 표본지역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 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받아 지정되며 시장·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산정지구 내에 수남제와 가야 제, 산정제 등 도심습지 3곳이 모두 공원으로 계 획돼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및 토사 유입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습지보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주민 합의로 광주 장륙습지 가 국가습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광주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등이 제정된 점 등을 들어 가야제도 생태경 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관리를 필요하 게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전위원장은 “광주시와 환경부에 가야제 생태경관보전 지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상업부지, 땅

신안동,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투자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33평, 사무실 전용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오피스텔 부지

대인동, 156평,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